

## 창세기(20)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아담이 오실 자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 장 16 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에 자랑, 정욕과 자랑뿐인 세상은 다 지나갈 것이므로 이 세 가지를 피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구원은 받았지만 밥만 먹으면 죄짓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7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들의 눈이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 여러분, 무화과 하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철도 아니지만 무화과나무에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없었니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이튿날 지나가다 보니까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왜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나무 그러면 우리는 저주받은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절대로 보통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무엇이기에 왜 주님께서 그것을 저주하셨을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틀림없이 에덴동산에서 무화과로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가렸던 것을 분명히 아시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훤히 보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찾아보고 기억해야 하지만 주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 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 분 말씀 한 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사로이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눈이 열렸어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그들의 눈이 진짜 열렸습니다. 사탄이 다 거짓말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눈이 열린다. 네가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신들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죄를 하나 짓고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었어요. 그가 얻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엄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실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 지으면 이거 한 번쯤이야 그러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기억들을 못합니다. 내가 죄를 하나 졌지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모든 원인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간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고 결국 감사로 기도가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과일 하나 먹어서 지식을 얻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상 낙원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지상 낙원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리는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면류관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없고 범죄도 없고 세금 낼 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전쟁도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육신이 너무나 찌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별거벗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것을 회복하려고 멕시코 같은 곳에 가보면 별거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그것이 되나요? 자기네끼리 모여 있으니 안 되지요. 어떤 사람들은 별거벗고 스트리킹을 하는 등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대화하는 것어요. 환경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 말이지요. 동물들에 속한 것들 껌데기나 털 같은 것들로 해서 입고 또 땅에서 나는 식물들로 짜서 입은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다른 창조물들은 옷을 아예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별거벗고 일대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욥이란 사람도 “내가 별거벗고 어머니 뱃속에서 맨몸으로 나왔사오니 내가 맨몸으로 돌아가리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아주 정확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습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아무 것도 가져가지 못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증거를 했습니다.

또 이사야 64 장 6 절에 보면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했습니다. 인간들이 에덴에서 별거벗은 것을 알게 다음부터 한 것이 바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무화과나무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별거벗은 모습을 가려서 좀 더 멋있게 보이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니까? 소위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종교는 많이 있잖아요. 불교, 힌두교, 유교, 천주교도 있고 거기에 개신교도 있습니다. 개신교라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개신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고 나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 취미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개신교입니다. 나는 카톨릭입니다. 나는 안식교 신자입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념도 종교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습니다. 딱 한 절

사도행전 2 장 44 절 “모든 물건을 다 함께 공동으로 쓴다.” 이 말씀 한 마디만 인용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애버리고. 율법은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다 어기게 된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빼놓고서 적당히 믿는 사람이나 하나만 빼내서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별 차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면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화과나무는 앞으로 이 땅에 충만할 무화과나무의 형태인 여러 가지 종류의 무화과나무임을 미리 아시고 저주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목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심술궂게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제자들을 일부러 그곳으로 끌고 가서 슬쩍 지나가셨을까요? 그 중 베드로가 제일 영리했습니다. “아,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나이다.” 참 주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종교인이 가인 아닙니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 같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알고 피가 없이는 안 된다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어 눈이 열리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대표적인 행동이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숨어버리고 가려버리는 것이었기에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모든 인류들에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뭔가를 자랑하고 포장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죄인됨을 가리는 상태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을 찾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인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스스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다니시던 분, 수가성 여인이나 삭개오 같은 죄인들을 일일이 찾아가셨던 주님! 창녀를 만나서 위로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가면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일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옛날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고 찾아가서 네가 어디 있느냐? 당신 어디 있습니까? Where are you?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당신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화과나무로 엮여 있는데 당신은 벌거벗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찾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가족옷을 입혀 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고 모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잘 사용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고 행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